

한국투자증권은 당사 고객 및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맺은 법인에게만 리서치 리포트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사전 승인 없이 리포트를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및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정 예산안 편성 시에도 영향은 제한적 예상

중의원 선거에서 통과된 예산안이 참의원에서 심의가 장기화되고 있다. 3월 말까지 최종적으로 통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잠정 예산안 편성안에 초점이 맞춰지며 예산 집행 불확실성이 재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해당 요인으로 일시적으로 닛케이 지수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재진입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결국 4월 11일에는 기존의 예산안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이란의 충돌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도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에서는 흔하지 않은 잠정 예산안 집행에 대한 경계는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으나, 결국은 다카이치 2차 내각의 정책이 지수 반등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란 충돌 완화 시에도 반발 매수세가 크게 유입될 수 있는 지역이며,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시 각국의 내부 정책 및 펀더멘털로 관심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일본에는 우호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본 증시 전망: 반등 여력 보유 판단

일본 닛케이 지수의 예상밴드 상단은 62,500pt로 유지한다. 미국-이란 충돌 이후에도 아직 일본 기업의 펀더멘털 훼손이 제한적이고, 고금리와 엔화 약세 기조 장기화 수혜가 예상되는 업체들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내수 부양 정책과 성장 산업 지원 정책이 구체화되고, 미국-이란 충돌 마무리 이후에도 수요가 높아질 인프라 관련주도 단기 조정으로 진입 부담이 완화됐다. 일본은 3월 말~4월 중순까지 내부 예산안 집행 방향성이 구체화되고, 엔화 강세 전환 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일본 대형 기업들의 펀더멘털 개선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단순히 정책이 공격적으로 발표되는 것 이외에도 기업들의 성장, 내수 소비 증가가 동반되고 있다는 점이 지수 상승 동력이 될 전망이다.

일본 투자 아이디어: 결국은 내각+중앙은행 수혜주

일본 내부로 관심이 이동하고, 예산안이 구체화되는 경우의 수혜 업체는 결국 다카이치 내각과 중앙은행 정책 관련주다. 대표적으로는 대형 IT/AI 관련주, 인프라/장비 업체, 금융주가 있으며, 엔화 약세 기조 완화 시에는 내수주의 매력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 산업의 지원이 강화되고 일본은행(BOJ)의 선순환 구조 유지 및 정책금리 인상에도 대응 가능한 업체들이다. 고물가 대응 조치와 임금 인상 수혜도 기대된다. 친주주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해당주도 투자 아이디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 일본의 눈 앞의 숙제 “예산안 통과”

2026년 예산안 통과가
시급한 일본

일본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지역인 만큼 미국과 이란 충돌에 따른 등락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일본도 양국의 갈등 영향은 불가피하나, 에너지 수급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는 국면에서는 1) 예산안, 2) 임금인상, 3) 고물가/기업 지원 정책으로 빠르게 관심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안
편성, 세부 내역 관심
높아질 전망

무엇보다 주목해야 하는 정책은 "예산안"이다. 일본은 3월 13일 2026년 예산안이 중의원을 통과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참의원에서의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회계연도 말을 맞이하는 3월 31일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 11년 만에 잠정 예산안이 집행될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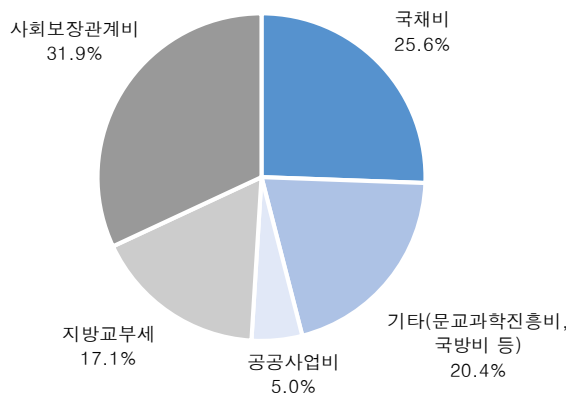
일본에서는 2015년 이후 처음으로 편성이 예상될 정도로 혼란의 일은 아니나, 3월 31일까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고, 잠정 예산안이 편성되는 시기에도 일본 금융 시장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4월 11일에는 기존의 예산안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표 1> 2026년 예산안 통과 관련 일정

시기	예산안 관련 일정
3월 13일	2026년도 예산안이 중의원을 통과
3월 1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가 심의에 돌입
3월 19일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을 방문
3월 24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논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자민당 임원회에서 잠정 예산안 검토 필요성 강조
3월 2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출석해 집중 심의
3월 27일~3월 말	잠정 예산안 결정 및 심의
3월 31일	예산안 연내성립 여부 결정 기한
4월 11일	예산안 자연성립. 참의원에서 의결하지 않아도 자연 성립 예정
4월 12일	자민당 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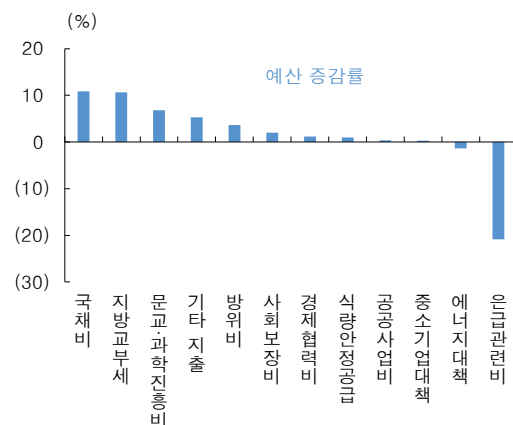
자료: 한국투자증권

[그림 1] 2026년도 예산안 집행 비중



자료: 일본재무성, 한국투자증권

[그림 2] 2026년 예산 증감률(2025년 대비)



자료: 일본재무성, 한국투자증권

예산안 집행 방향성은 다카이치 내각의 대표 정책과 유사하다. 고물가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내수 부양 정책과 성장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기반으로 한다. 문교/과학진흥비, 지방교부세, 사회보장비 등이 늘며 일본의 2026년도(26년 4월~27년 3월) 예산은 122.3조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도 전년대비 6.2% 늘어난 것으로 2년 연속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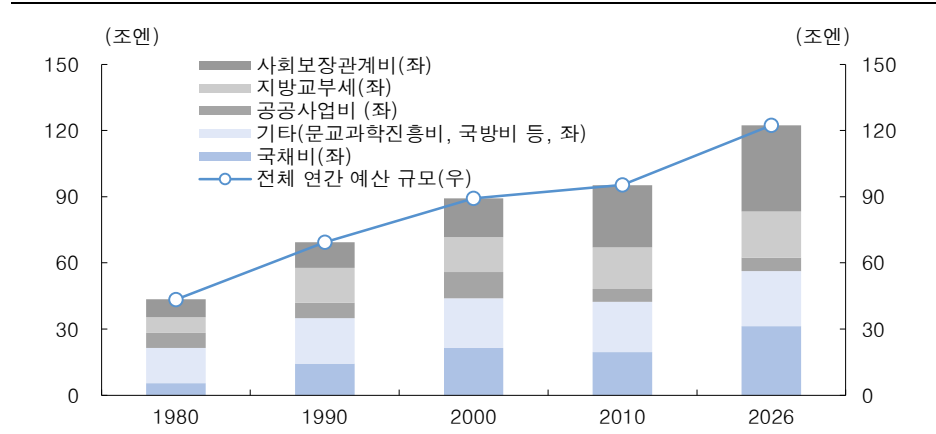
<표 2> 2026년도 예산안 세부 내역

(단위: 십억엔, %)

항목	2025	2026	증감폭	증감률
사회보장비	38,294	39,056	762	2.0
문교·과학진흥비	5,656	6,041	385	6.8
(그 중 과학기술진흥비)	1,422	1,438	16	1.1
국채비 (이자 포함)	28,218	31,276	3,058	10.8
은행관련비(공무원 연금)	62	49	(13)	(20.9)
지방교부세	18,873	20,878	2,005	10.6
방위비	8,669	8,984	315	3.6
공공사업비	6,086	6,108	22	0.4
경제협력비	505	511	6	1.1
중소기업대책	170	170	1	0.3
에너지대책	811	800	(11)	(1.4)
식량안정공급	1,261	1,273	12	1.0
기타 지출	5,854	6,164	310	5.3
예비비	740	1,000	261	35.2
전체 예산 규모	115,198	122,309	7,111	6.2

자료: 일본재무성, 한국투자증권

[그림 3] 일본 예산안 규모 및 주요 집행 내역



자료: 일본 재무성, 한국투자증권

2. 또 다른 속제는 “예산 지출 방법”

예산 지출 여력 경계 크나,
결론은 더 벌어서 더 쓴다

일본 다카이치 내각의 지출 방향성은 뚜렷하나, 문제는 일본의 세수 확보 방법이다. 무조건적으로 정부의 지출을 늘릴 수 없고, 일본은행(BOJ)은 정책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본 내부에서 지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확인했다.

경제를 성장시켜
세수를 늘리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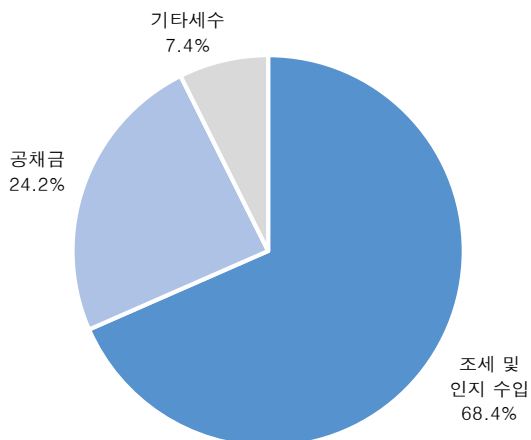
결론은 세수 수입이 늘고 있고, GDP가 증가하며 일본 부채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일본 세수 수입은 2019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소득세, 소비세, 법인세 합계는 2023년도에는 1.0% 증가하는 것에 그쳤으나, 2024, 2025년도에는 4.0%, 8.9% 증가했다. GDP 대비 소득세, 소비세,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늘었다.

GDP도 늘었으나, 세수가 늘어난 이유는 제품/서비스 가격 인상과 수출 증가 등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됐고, 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이 증가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 춘투 1차 집계를 살펴보면 기본급 인상분과 정기승급분을 합한 평균 임금 인상률이 5.26%로 3년 연속 임금 인상률이 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4~5월 중소기업들의 임금 협상안이 공개되면 현재보다 소폭 낮아질 수 있으나, 여전히 임금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실질보다 명목임금 인상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국가였으나, 올해 1월에는 실질 임금도 13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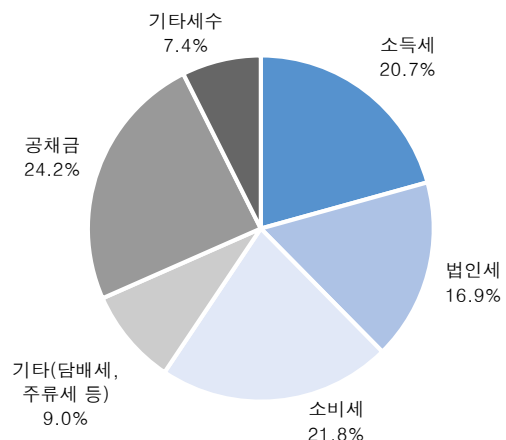
고유가-고물가 부담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일본도 고물가 장기화 경계는 이어가고 있으나, 사실 일본은 고물가 기조가 무조건적으로 나쁘지 만은 않다. 일본은 금주 공개된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신선식품 제외 기준으로 1.6%를 기록해 2022년 3월 이후 3년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2.0%를 하회한 점이 부각되기도 했다.

[그림 4] 2026년도 세수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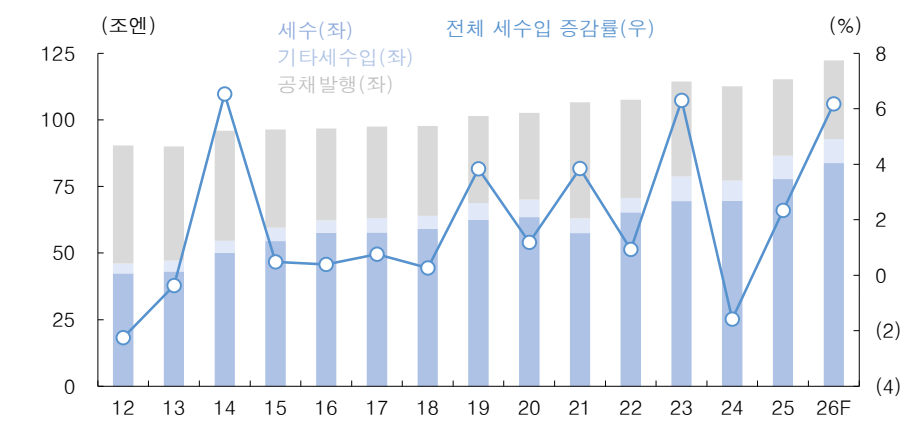
자료: 일본재무성, 한국투자증권

[그림 5] 2026년 세부 세수 내역 - 조세 수입 비중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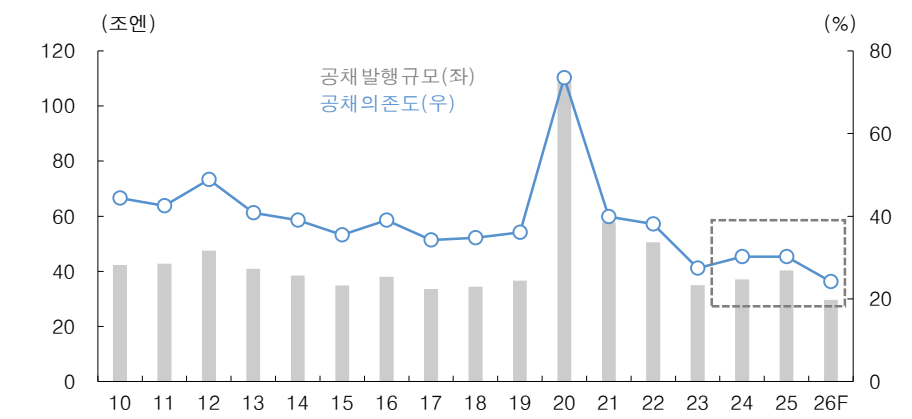
자료: 일본재무성, 한국투자증권

[그림 6] 일본 세수 수입 합계 및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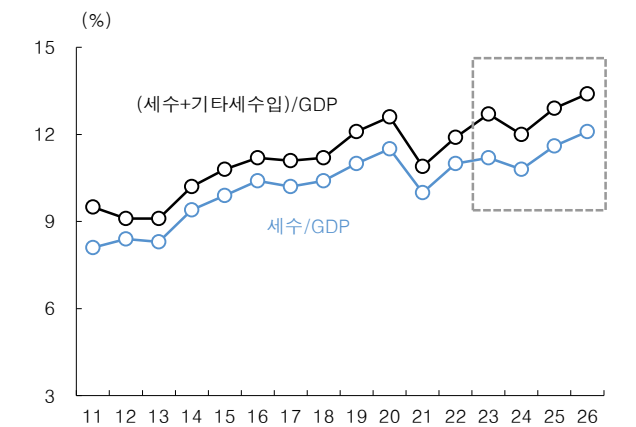
자료: 일본 재무성, 한국투자증권

[그림 7] 일본 국채발행 규모 및 의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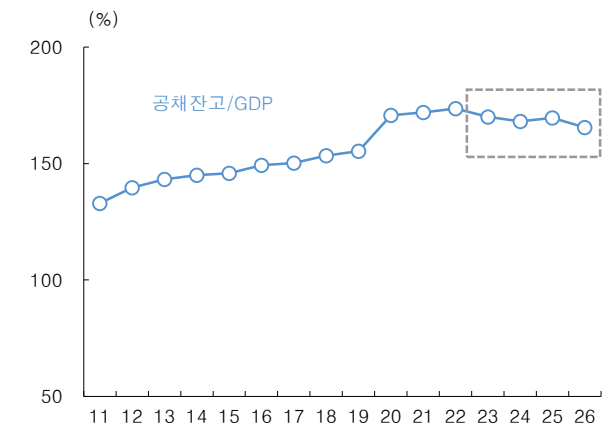
자료: 일본 재무성, 한국투자증권

[그림 8] 세수 수입/GDP: 확대



자료: 일본재무성, 한국투자증권

[그림 9] 연간 일본 공채잔고/GDP 비중: 축소



자료: 일본재무성, 한국투자증권

3. 선순환 구조 확보가 불가피

결론은 일본 내각과 중앙은행이 강조하는 임금, 물가, 소비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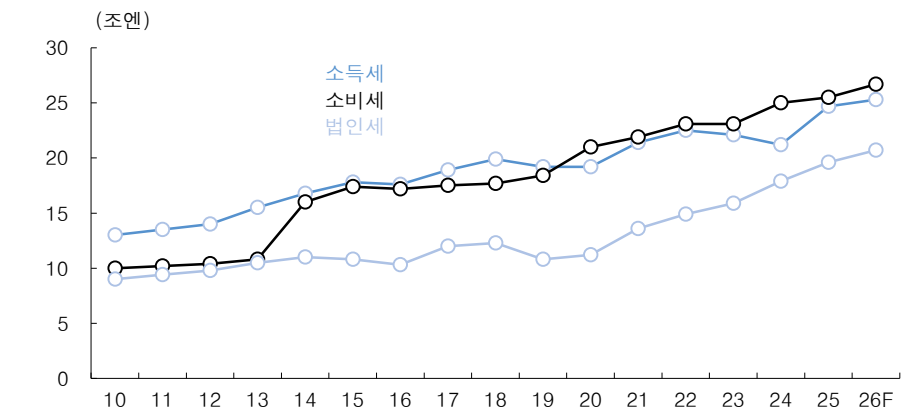
일본은 결국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 임금 인상, 소득 증가, 소비 확대에 따른 일본 경제 성장은 일본 중앙은행(BOJ)과 일본 내각의 대표 정책 방향성이다. 선순환 구조를 기반으로 한 경제 성장은 BOJ 회의에서 여러 번에 걸쳐 언급되는 표현이기도 하다.

3월 말~4월에도 고물가 대응을 위한 내수 부양 정책과 세수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 외교 정책 불확실성 등은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핵심은 일본 내각도 BOJ도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표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GDP 대비 세수 수입이 늘고 있고, GDP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일본의 국채 발행 부담을 완화시키고, BOJ의 정책금리 인상 부담도 상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눈앞의 숙제 해결 방법도
'선순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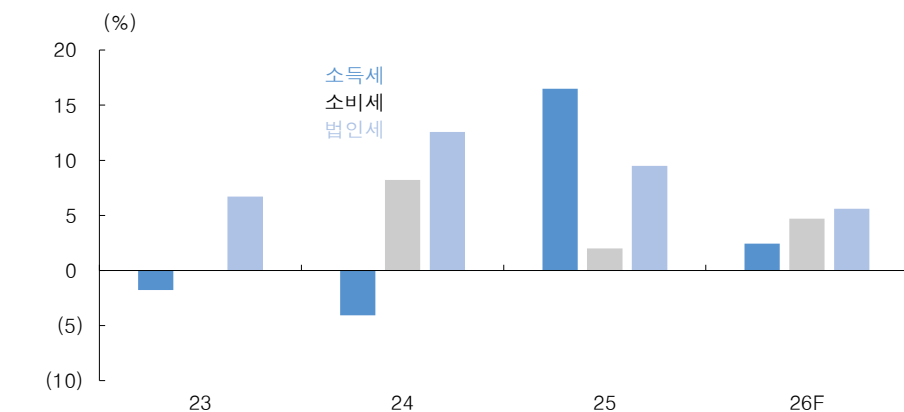
일본은 국채발행 부담이 지속적으로 언급되나, 결국 기업 실적 개선, 소비 증가, 법인세/소득세 증대로 부채 부담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순환 구조 유지를 위한 임금 인상, 기업 지원, 내수 부양 정책 등이 유지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판단한다.

[그림 10] 항목별 세수 수입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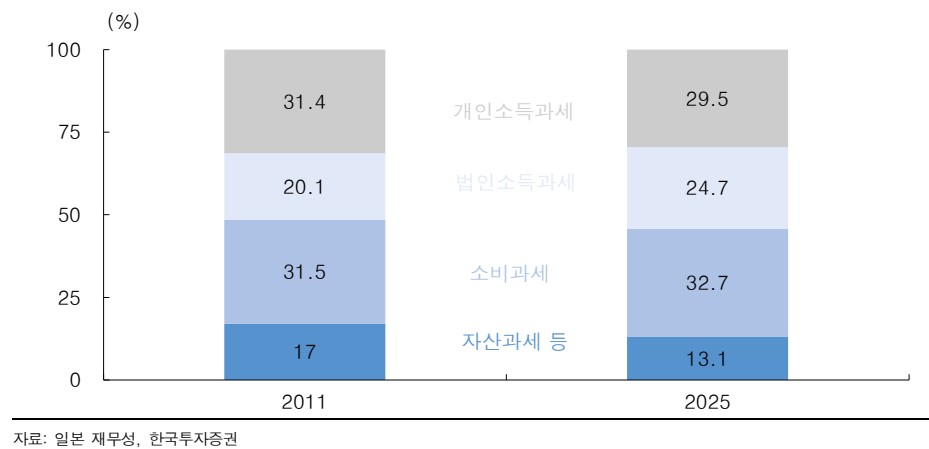
자료: 일본 재무성, 한국투자증권

[그림 11] 항목별 세수 수입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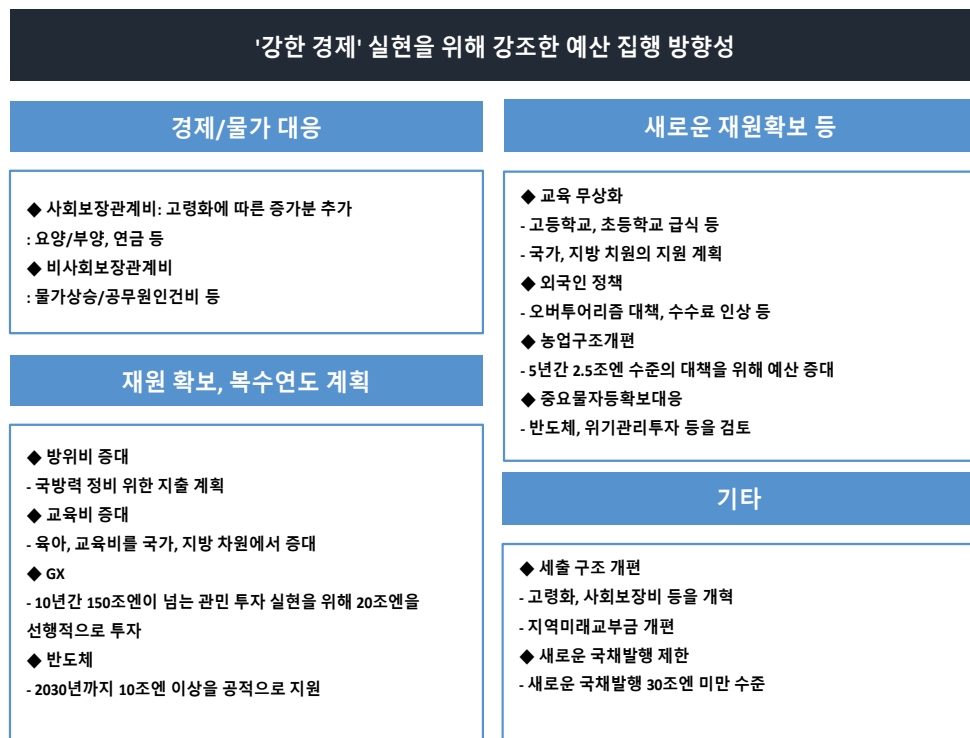


자료: 일본 재무성, 한국투자증권

[그림 12] 일본 국세+지방세 구성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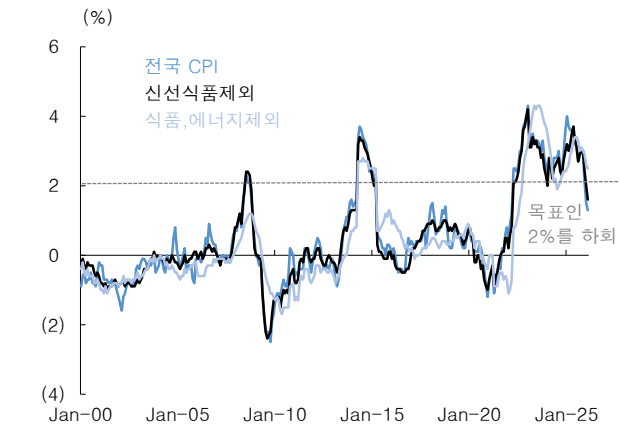
[그림 13] 2026년도 예산안 집행 방향성



자료: 일본 재무성,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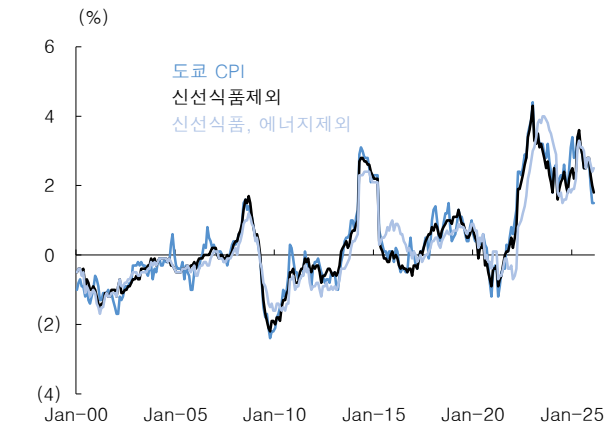
4. 일본 물가, 소비 관련 지표 점검

[그림 14] 일본 전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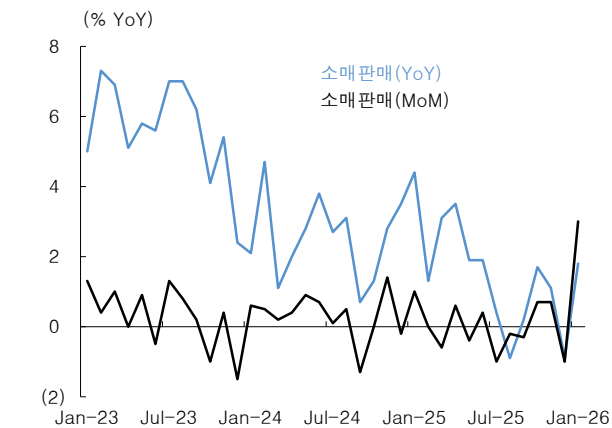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15] 일본 도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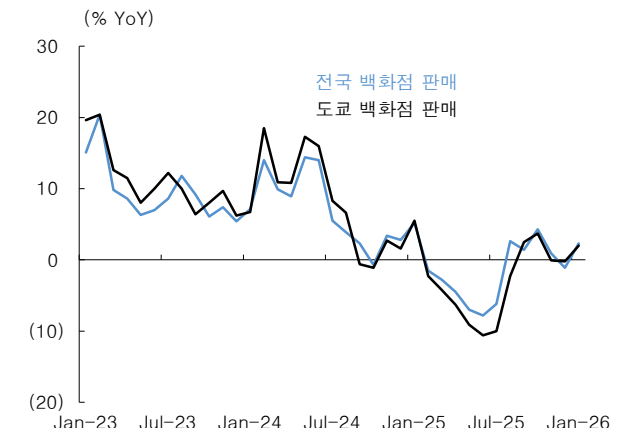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16] 일본 소매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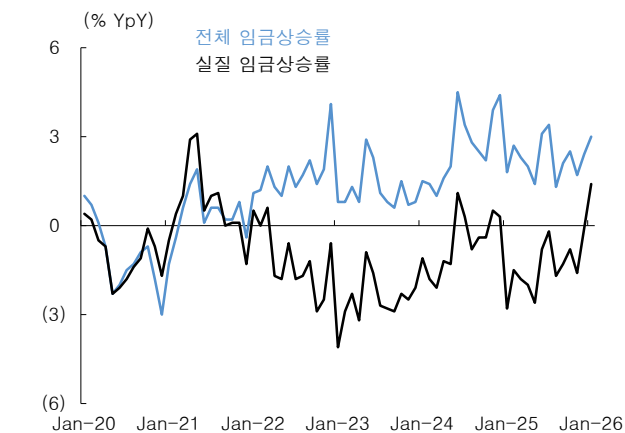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17] 일본 백화점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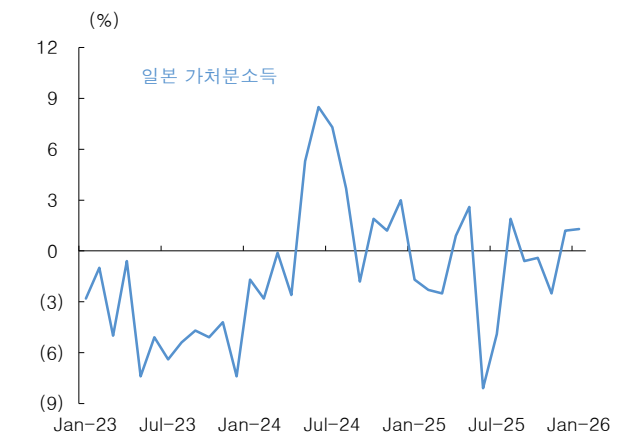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18] 일본 임금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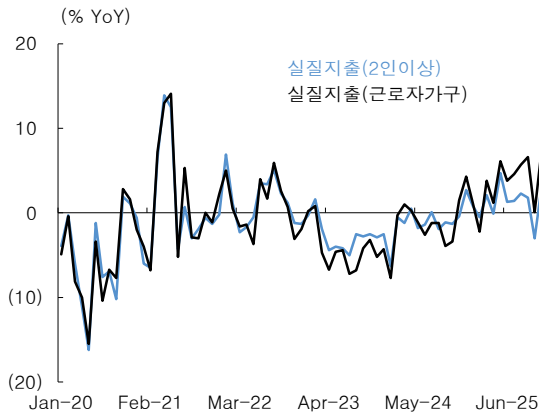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19] 일본 가처분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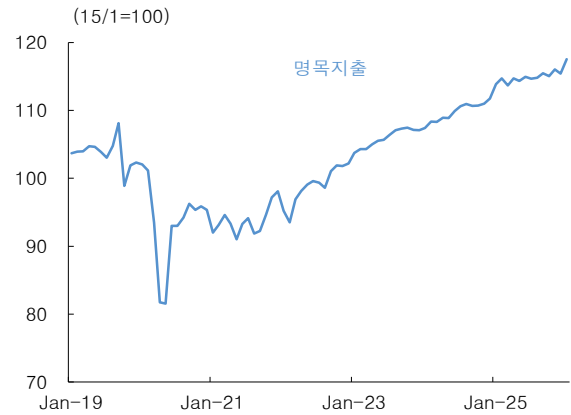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0] 일본 실질지출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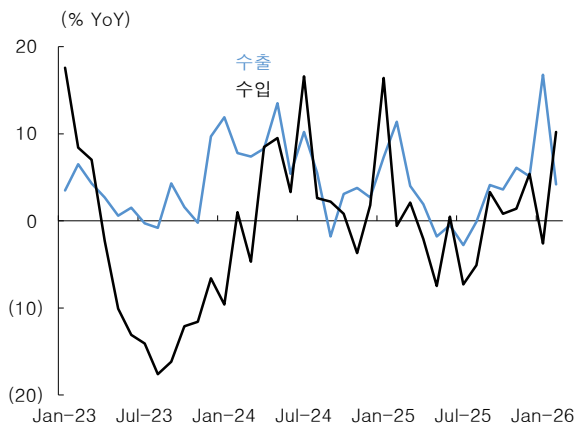
[그림 21] 일본 명목지출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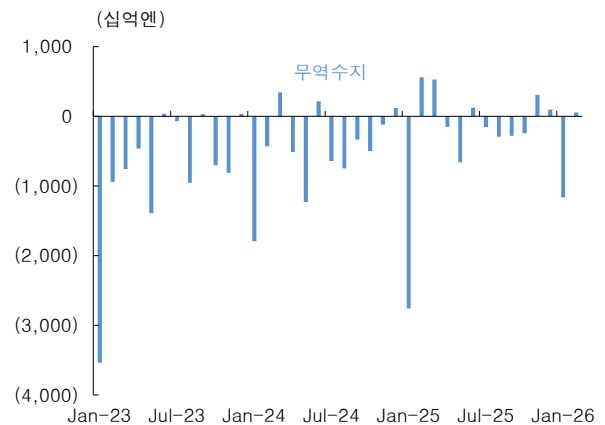
5. 일본 무역, 환율 관련 지표 점검

[그림 22] 일본 수출입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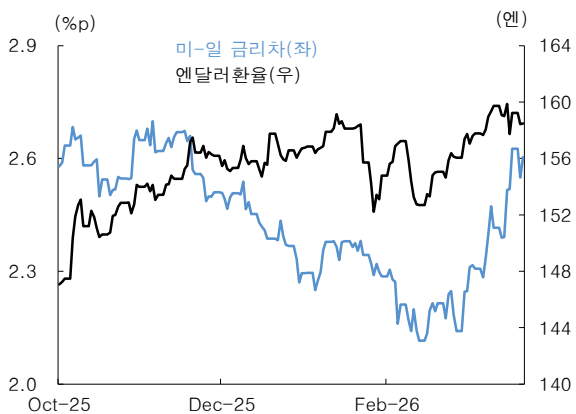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3] 일본 무역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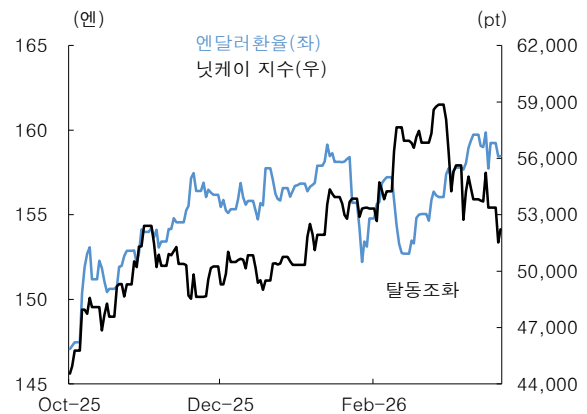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4] 미-일 금리차 및 엔달러환율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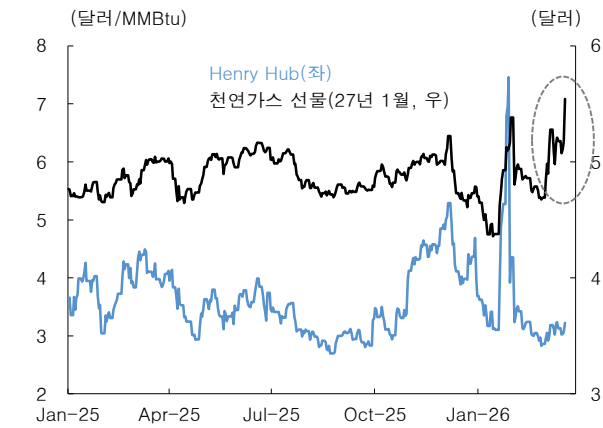
[그림 25] 일본 환율 및 지수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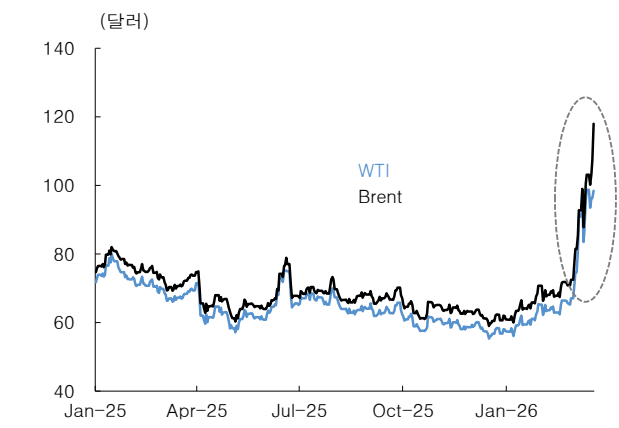
6. 미국-이란 충돌이 미치는 영향

[그림 26] 가스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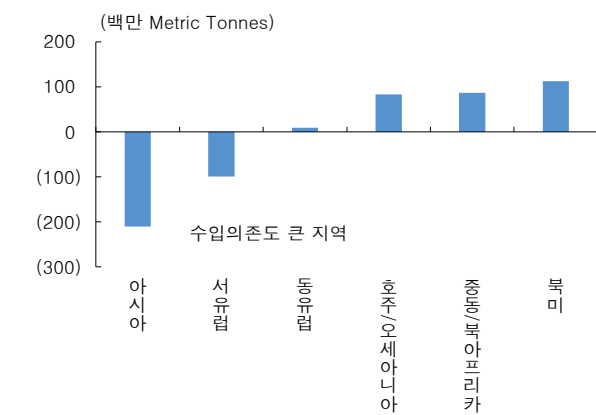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7] 원유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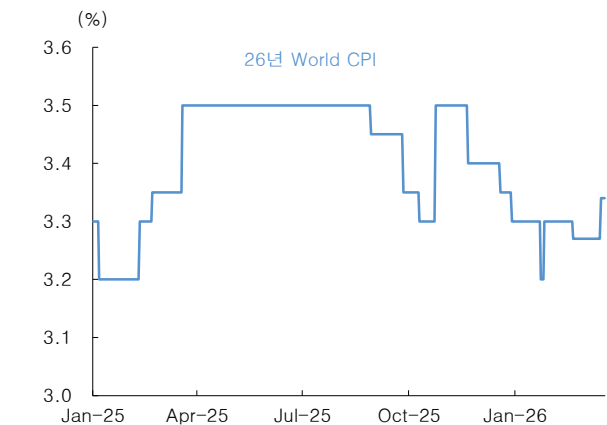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8] 지역별 연간 천연가스 순수출규모(2025년)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9] 글로벌 2026년 CPI 상승률 전망치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30] 일본 국채금리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31] 달러인덱스, 엔달러환율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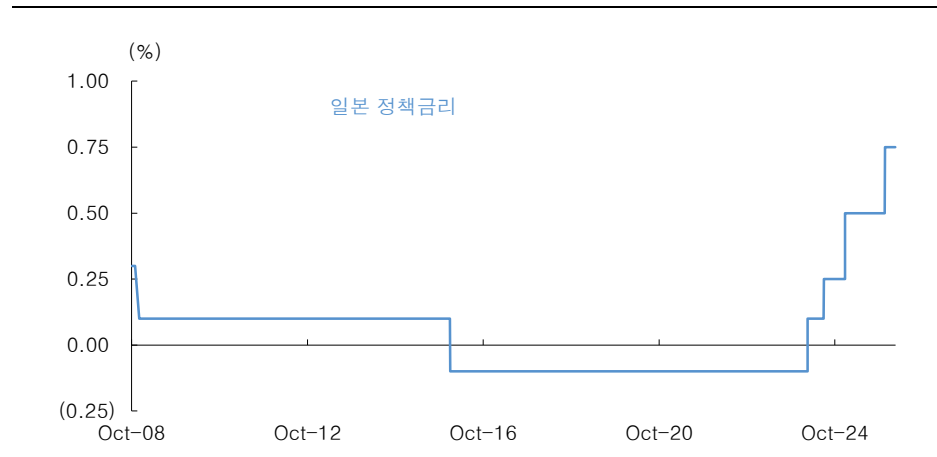
7. 일본 중앙은행 정책 방향성

<표 3> 일본은행(BOJ) 정책 요약

시기	내용
2013 년 3 월	일본은행은 양적/질적 금융완화 정책 도입 장기 국채 매입을 통해 본원통화량 2 배 확대(양적완화) 위험자산(ETF, J-REIT) 매입 확대(질적완화)
2016 년 1 월	마이너스 금리 도입
2016 년 9 월	YCC 정책 도입. 장단기 금리 조절 정책 실시 단기금리를 -0.1%로 고정. 장기금리를 0% 수준으로 유지
2020 년	코로나19 확산→ 국채, ETF, J-REIT 매입 규모 확대
2022 년 12 월	장기금리 변동폭 확대 $\pm 0.25\% \rightarrow \pm 0.50\%$
2023 년 7 월	장기금리 변동폭 확대 $\pm 0.50\% \rightarrow \pm 0.50\% \sim 1.00\%$
2023 년 10 월	장기금리가 1.00% 넘어도 유연하게 운용할 계획 발표
2024 년 3 월	마이너스 금리 해제, YCC 정책 철폐
2024 년 4 월	단기금리 0~0.1% 유지
2024 년 6 월	다음 회의까지 기존 정책 유지하나 향후에는 국채매입 규모 축소 계획
2024 년 7 월	정책 금리를 "0.25% 정도"로 인상. 국채 매입 규모 축소 계획 구체화
2024 년 9 월	정책 금리를 "0.25% 정도"로 유지
2024 년 10 월	정책 금리를 "0.25% 정도"로 유지
2024 년 12 월	정책 금리를 "0.25% 정도"로 유지
2025 년 1 월	정책 금리를 "0.50% 정도"로 인상
2025 년 3 월	정책 금리를 "0.50% 정도"로 유지
2025 년 5 월	정책 금리를 "0.50% 정도"로 유지
2025 년 6 월	정책 금리를 "0.50% 정도"로 유지. 국채매입 규모 축소 계획
2025 년 7 월	정책 금리를 "0.50% 정도"로 유지
2025 년 9 월	정책 금리를 "0.50% 정도"로 유지. ETF/J-리츠 매각 계획 발표 ETF 는 연간 3,300 억엔 정도, J- 리츠는 연간 50 억엔정도의 속도로 매각 진행 예정
2025 년 10 월	정책 금리를 "0.50% 정도"로 유지
2025 년 12 월	정책 금리를 "0.75% 정도"로 인상
2026 년 1 월	정책 금리를 "0.75% 정도"로 유지
2026 년 3 월	정책 금리를 "0.75% 정도"로 유지

자료: 일본은행(BOJ), 한국투자증권

[그림 32] 일본 정책금리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8. 경제 성장으로 완화되는 부채 부담

저성장 국가의 성장기

일본은 대표적인 저성장 국가로 평가됐으나, 최근에는 경제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국가로 전환됐다. 일본의 2025년 10~12월기 GDP는 연환산 기준으로 전분기대비 1.3% 증가했다. 속보치였던 0.2% 대비로도 크게 개선됐다. 기여도를 살펴보면 내수 중심의 성장이 이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소비가 속보치 대비로도 개선됐고, 설비투자 와 정부지출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 반영됐다.

AI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센터 투자와 건설 투자도 기대보다 높았다. 개인 소비는 속보치였던 0.1% 대비 개선된 0.3%로 상향됐고, 주택투자는 4.8%에서 4.9%로 상향됐다. 정부 지출은 0.1%에서 0.4% 증가로 개선됐다.

저성장 국가였으나, 명목 GDP가 5년 연속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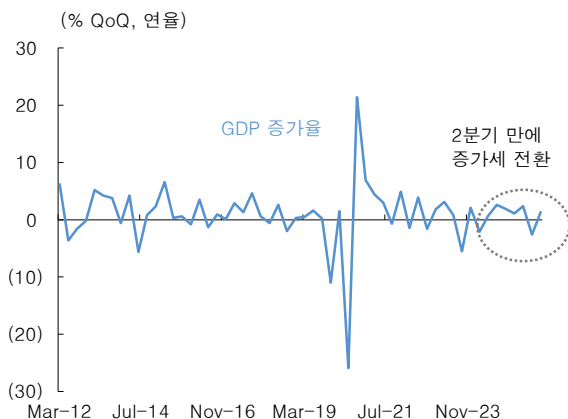
2025년 연간으로는 실질 GDP가 전년대비 1.2% 증가한 591.4조엔, 명목 GDP가 4.7% 증가한 663.8조엔이었다. 실질 GDP는 2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전체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소비와 정부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명목 GDP는 5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며 디플레이션 국가 탈피를 시도하고 있다.

부채 부담은 크나, GDP 대비 부담은 완화

일본은 여전히 부채 부담이 큰 지역이나, 경제 성장이 이어지며 미국, 영국 등의 기타 국가들과 달리 GDP 대비 부채 부담이 완화됐다. 일본은 여전히 GDP 대비 부채 부담은 높으나, 미국, 영국, 기타 유럽 국가들과 달리 GDP 대비 부채잔고도 코로나19 확산 이후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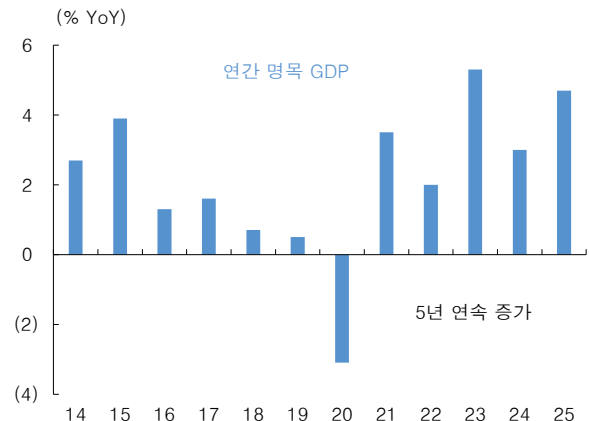
향후 대형, 소형 기업들의 체감 경기를 확인할 수 있는 단칸 지표도 개선되고 있다. 2025년 12월 대형 제조업 단칸지수는 15pt를 기록해 2021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높아졌다.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땠던 소형 제조업, 비제조업 지표도 개선되며 향후 경기 회복 기대감은 여전히 높게 평가되고 있다.

[그림 33] 일본 실질 GDP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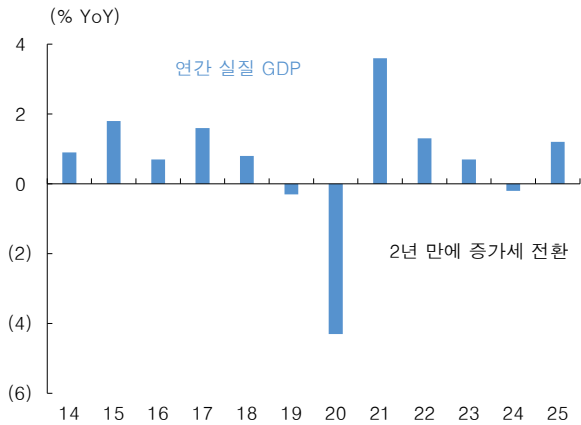
자료: 일본통계청, 한국투자증권

[그림 34] 일본 연간 명목 GDP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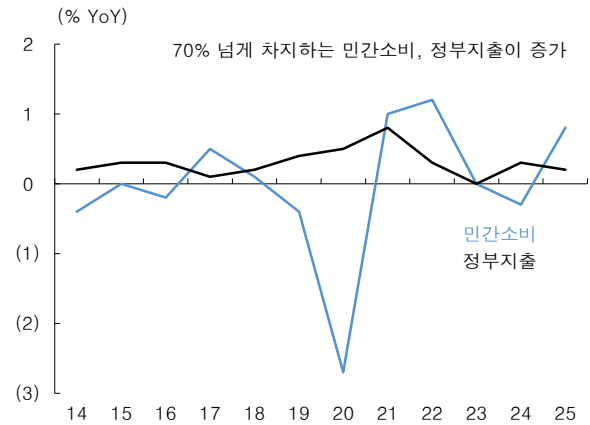
자료: 일본통계청, 한국투자증권

[그림 35] 일본 연간 실질 GDP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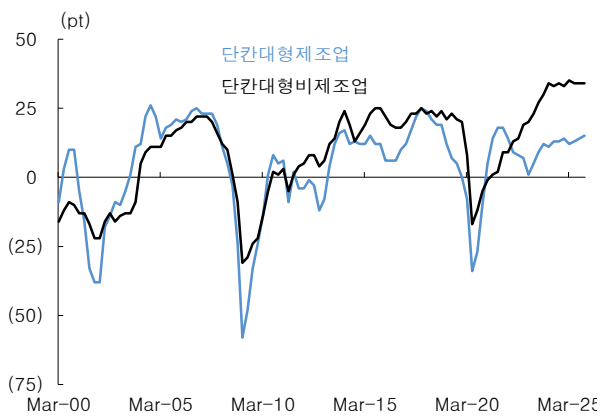
자료: 일본통계청, 한국투자증권

[그림 36] 일본 민간소비, 정부지출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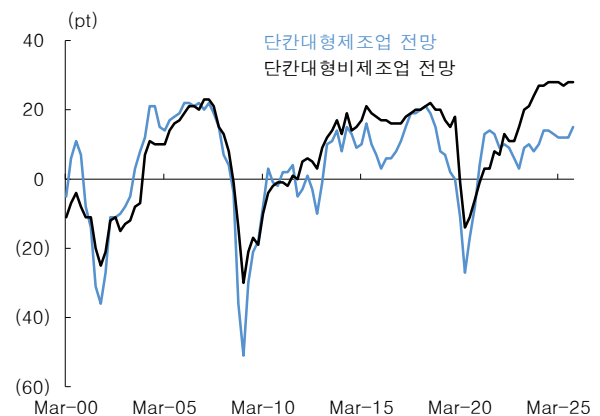
자료: 일본통계청, 한국투자증권

[그림 37] 일본 대형 제조업/비제조업 단칸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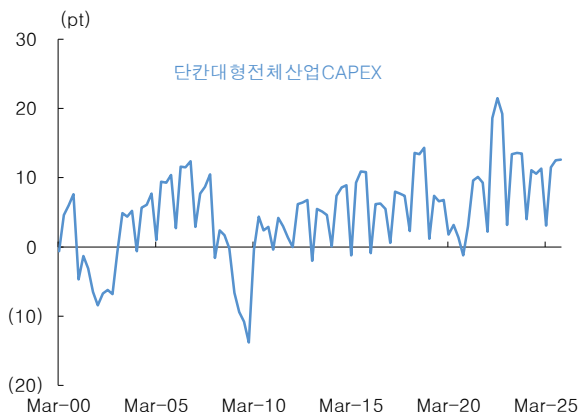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38] 일본 대형 제조업/비제조업 단칸 전망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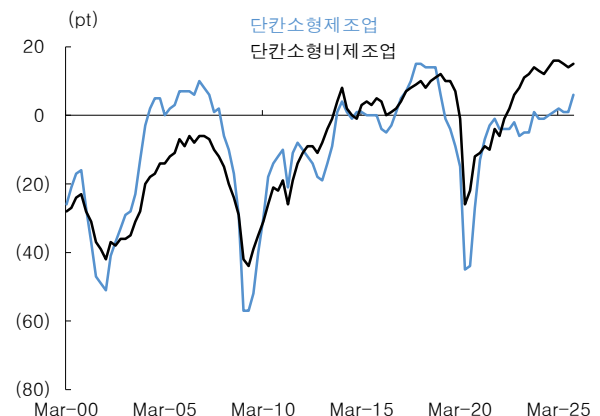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39] 일본 단칸지표 - CAP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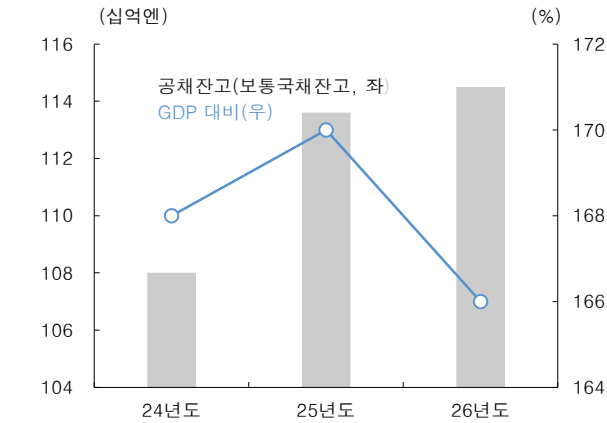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40] 일본 소형 제조업/비제조업 단칸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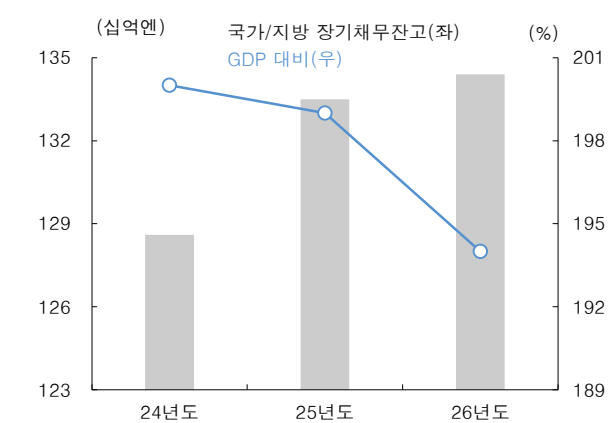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41] 부채증가에도 GDP 대비 부담은 완화(국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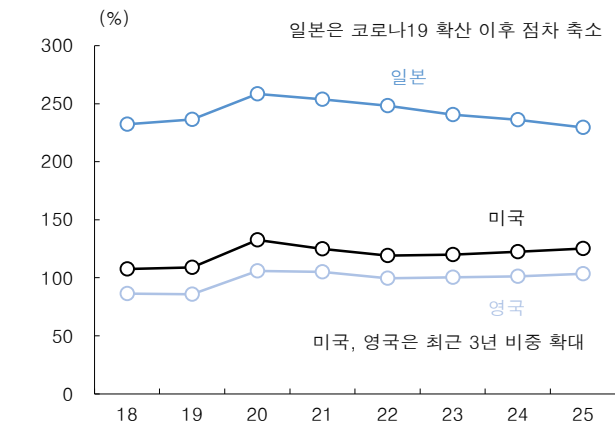
자료: 일본재무성, 한국투자증권

[그림 42] 부채증가에도 GDP 대비 부담은 완화(장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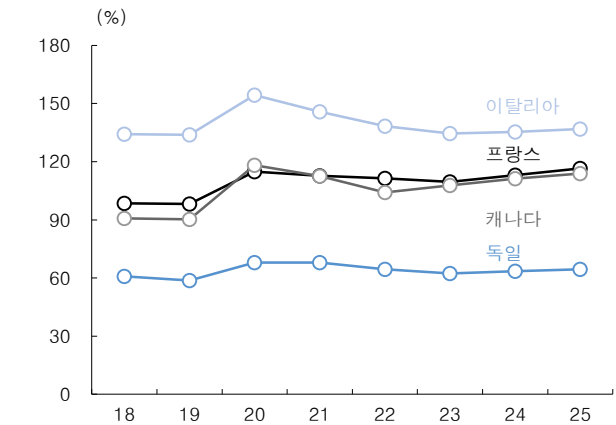
자료: 일본재무성, 한국투자증권

[그림 43] GDP 대비 부채잔고(일본, 미국, 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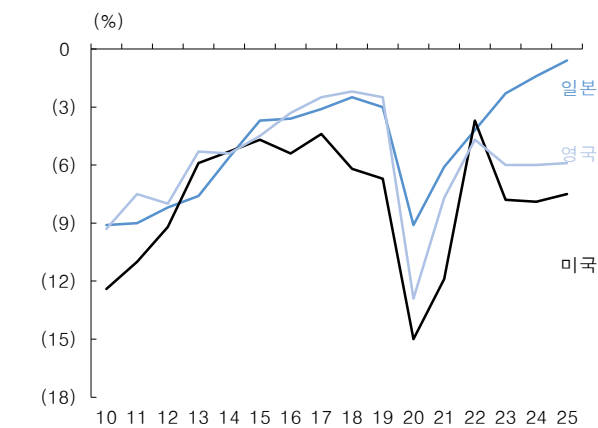
자료: IMF, 일본재무성, 한국투자증권

[그림 44] GDP 대비 부채잔고(캐나다, 기타 유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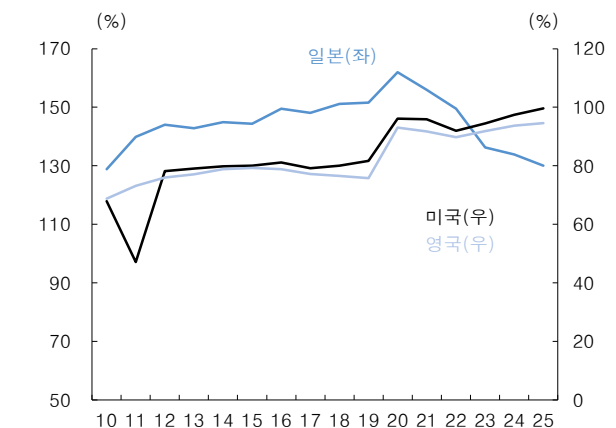
자료: IMF, 일본재무성, 한국투자증권

[그림 45] GDP 대비 재정수지 비중(일본, 미국, 영국)



자료: OECD, 일본재무성, 한국투자증권

[그림 46] GDP 대비 순부채잔고 비중(일본, 미국, 영국)



자료: IMF, 일본재무성, 한국투자증권

9. 적극적인 수 밖에 없는 다카이치 내각 정책

결론적으로 목표는
디플레이션 탈출, 경제 성장

결론은 선순환 구조 유지를 위한 정책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채 발행 부담 증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정치 불확실성 심화 등은 일시적으로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으나, 일본 내각과 중앙은행이 강조하는 임금, 물가, 소비의 선순환 구조 유지를 위한 정책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카이치 내각의 대표 정책과도 연결된다. 2026년도 예산안의 세부 내역에도 소비, 기업 지원 필요성은 확인할 수 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 부담이 완화되는 시기에는 무엇보다도 일본 내부에서는 시급하게 예산안이 논의돼야 하는 시기다. 4월에도 고물가 부담이 고금리, 환율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고물가를 기반으로 기업 실적 개선, 소비 증대를 위한 정책은 기존 보다도 공격적으로 발표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잃어버린 30년을 완전 탈피
하기 위한 노력은 진행 중

미국과 이란 충돌이 마무리된 직후에는 일시적으로 경기민감주의 반등이 크게 나타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선순환 구조 확보를 위한 일본 내각, 중앙은행 정책 수혜 업체를 주목해야 한다. 잃어버린 30년에 재진입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다카이치 내각의 숙제로 남아있고, 중앙은행의 채권 시장 정상화, 정책금리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은 시급하게 발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성장국가로의 전환,
금융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 관련주 주목
필요

다카이치 내각의 정책은 고물가에 대응하고, 성장 산업을 지원하고, 강한 일본을 만드는 정책을 중심으로 한다. 세부 정책 방향성을 살펴보면 가계, 지역 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늘리고, 성장 산업을 위한 지원을 늘리고, 방위비 관련 지출을 늘리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내각/중앙은행 대표 수혜 업체로는 성장/IT 기업, 산업 자동화 관련주, 금융주 등이 있다.

[그림 47] 다카이치 내각의 3개의 기둥

다카이치 내각의 3개의 기둥(핵심 정책)	
제 1의 기둥	생활안정보장: 고물가 대응 전략
제 2의 기둥	위기관리투자: 성장투자예 따른 강한 경제 실현
제 3의 기둥	방위력 및 외교력 강화: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강한 일본 실현

자료: 수상관저, 내각부, 한국투자증권

[그림 48] 다카이치 내각의 3개의 기둥 세부 정책

3개의 기둥 세부 정책	
제 1의 기둥	생활 안정 보장/고물가 대응 전략
- 지역별 고물가 부담 완화 위한 정책 구체화(지원금 지급 등) - 가계/사업자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교육비 지원 등 - 지역 생활 안정화, 지역 발전/활성화 위한 지원 확대 - 임금인상을 위한 환경 형성,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 지원 등	
제 2의 기둥	위기 관리 투자
- 선행적이고 집중적인 위기관리 투자/성장투자를 강화 - 경제안전 보장 강화, 식품안전보장 확립 - 에너지/자원 안정화 - 원자력, 에너지 절약, 자원개발, GX 등 - 미래를 위한 투자 확대 - 첨단과학기술, 스타트업/콘텐츠/문화예술/스포츠 진흥, 건강의료안전보장, 인적 투자 촉진, 자산운용 확립, 성장투자확대를 위한 환경 형성	
제 3의 기둥	방위력 및 외교력 강화
- 외교, 안전보장환경에 대한 대응 - 방위력 강화 위한 기술 구축, 제재 정비, 다각화된 경제외교 전개 - 미국 관세 대응 - 미국과 일본의 전략적 투자 강화, 관세 영향 받는 기업을 위한 지원 등	

자료: 수상공저, 내각부, 한국투자증권

<표 4> 다카이치 신임 총재의 대표 5대 정책

구분	대표 정책	목적
1	대담한 "위기관리투자"와 "성장투자"로 "생활의 안전/안심"의 확보와 "강한 경제" 실현	성장/안보/에너지/보안 산업 강화
2	지방에는 큰 "성장 가능성"이 있음. 지방의 "생활"과 "안전"을 지킴	지방 산업 성장, 역할 다각화
3	"방위력"과 "외교력"의 강화로 일본 평화를 지키자	방위/보안 관련 산업 강화. 무역체제 강화
4	현재를 살아가는 일본인과 차세대에의 책임을 다함	헌법 개정
5	신뢰할 수 있는 자민당, 강한 자민당	정치 자금 투명화 등

자료: 다카이치 홈페이지, 한국투자증권

[그림 49] 다카이치 내각의 대표 정책 수혜 업종

다카이치 내각의 대표 정책 수혜주			
1	대표 성장/시	5	보안
2	산업 자동화/로봇	6	소비재
3	에너지	7	금융주
4	우주항공/방산	8	배당주

자료: 수상공저, 내각부, 한국투자증권

10. 다카이치 내각 정책 수혜 업체/ETF

<표 5> 다카이치 내각의 대표 정책 수혜 기업

티커	종목명	투자포인트
6501	히타치	- 일본 산업 자동화, 디지털화, AI 산업 성장 수혜주 - 글로벌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DX), 그린트랜스포메이션(GX)에 대응 가능한 장비/솔루션 보유 - 중장기적으로 일본 인구/산업 구조 변화에도 대응 가능
5803	후지쿠라	- AI 설비 투자 증가에 따른 인프라 매출 증가 기대. 핵융합 발전 프로젝트에도 참여 - 광섬유 케이블 등 데이터센터용 장비 수요 증가 예상 - 미국 송전망, 드론 수요 확대. 유럽/영국 정부 보조금 기반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 수혜 기대
6701	NEC	- 일본의 디지털화 가속화에 따라 IT 서비스 매출 증가 예상 - 국방 강화 수혜 반영되며 항공우주/방위 사업 부문 수주 증가 기대 - 항공우주/방위 사업을 더해 동아시아 해저케이블 계약 증가로 국내외 매출 개선
3778	사쿠라인터넷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인 사쿠라 클라우드와 호스팅 서비스인 사쿠라 렌탈 서버 보유 - 일본 총무성 산하의 정보통신연구기구(NICT)와 자국 AI 개발을 위한 계약 체결 수혜 예상 - 단기 실적 약화에도 정부 지원 증가 및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실적 개선 기대
6954	화낙	- AI 산업 성장과 산업 자동화 수혜 기대되는 대표 기계/로봇 관련주 - 로보드릴(ROBODRILL), 로보샷(ROBOSHOT), 로보컷(ROBOCUT) 기반으로 자동화 시설 확대에 대응 - 디지털 트윈 기술을 기반으로 FA 사업 부문 매출 증가 및 로봇 부문과의 시너지 기대
4751	사이버에이전트	- 대표 온라인 광고 업체로 IP 기반의 중장기 매출 증가 기대 - 일본어 중심의 AI 개발 필요성 확대에 대응 가능한 기술력 보유 - 수익성 높은 게임 부문에서 신작 판매 호조, 밸류에이션 부담 제한적
8001	이토추상사	- 다카이치 내각의 내수 성장 위한 정책 구체화 시 수혜 기대. AI 사업 진출에도 적극적인 상사 업체 - 섬유, 기계, 금속, 화장품, 주거용품 등의 사업 부문 보유. 대내외 불확실성 완화 수혜 예상 - 안정적 주주환원 정책 지속. 밸류에이션 부담 제한적
2914	재팬토바코	- 브랜드 경쟁력 높은 제품 보유해 정치/경기/외교 불확실성 확대 시에도 대응 가능 - 엔달러한을 하락 속도 둔화, 저축에서 투자로 정책 및 세제 혜택 강화 수혜 예상 - 안정적 배당 지급 업체로 중장기 투자 매력 높음
8697	일본거래소그룹	- 일본 친기업/친시장 정책 구체화 시 수혜 기대되는 대표 기업 - 더딘 엔달러한을 하락, 대형 기업들의 실적 개선 예상되는 점도 긍정적 작용 예상 - 저축에서 투자로 정책, 디지털화 가속화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표 6> 다카이치 내각의 대표 정책 수혜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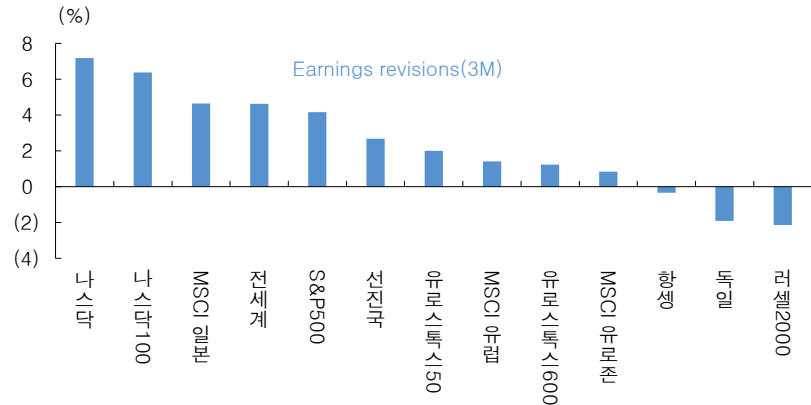
티커	ETF 명	선정 이유
1624	NF TOPIX-17 기계 ETF	일본 내 공급망 구축. 제조시설 강화 수혜 기대되는 산업 자동화 기업들로 구성 AI 산업 성장/관련 기업 지원/규제 완화 수혜도 예상 인구 부족 해결 위해 중장기적으로도 수요 높아질 장비/서비스 보유 업체 포함
1627	NF TOPIX-17 전력/가스 ETF	일본 전력/가스 업체들로 구성 일본의 안정적 전력 공급 위한 인프라 강화 수혜 기대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 시 수요 높아질 업체들의 비중 높음
1629	NF TOPIX-17 상사 ETF	일본 대표 상사, 수출주들로 구성. 브랜드 경쟁력 높은 제품 판매 업체들이 상위권에 위치 일본 내수 부양 정책 구체화, AI 산업 성장, 국가간 협력 체제 강화 수혜 기대 일본 금융 시장의 유동성 확대 시 주목되는 업체들의 비중 높음
2638	Global X 일본 로봇틱스 & AI ETF	일본 산업 자동화, 로봇 산업 강화 수혜 업체들로 구성 일본 내부의 성장 산업 강화, 지원 증대 시 주목 예상 대표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 글로벌 시장 내 경쟁력 높은 제품/서비스 보유 업체 비중 높음
2836	Global X 일본 핀테크 ETF	일본 대표 핀테크/금융 업체들로 구성 일본 디지털화, 성장 산업 지원 증대 수혜 기대 중장기적으로 일본 자국의 데이터 활용도 증대 시 수요 높아질 사업 부문 보유한 기업 비중 높음
2854	Global X 일본 테크 Top 20 ETF	일본 대표 IT/반도체, 방산, 인프라 관련 업체들로 구성 제품/서비스 경쟁력 높고, 글로벌 브랜드 경쟁력 보유한 업체들이 상위권에 위치 방산/우주/AI 산업 성장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 업체들이 포함
1489	NF Nikkei 225 고배당주50 지수 ETF	일본 NISA 정책 확장 수혜 기대 청소년, 고령층 대상의 NISA 계좌 확충 시 부각될 업체 비중 높음 주주환원 매력 높은 업체들로 구성

주: NF(Next Funds)

자료: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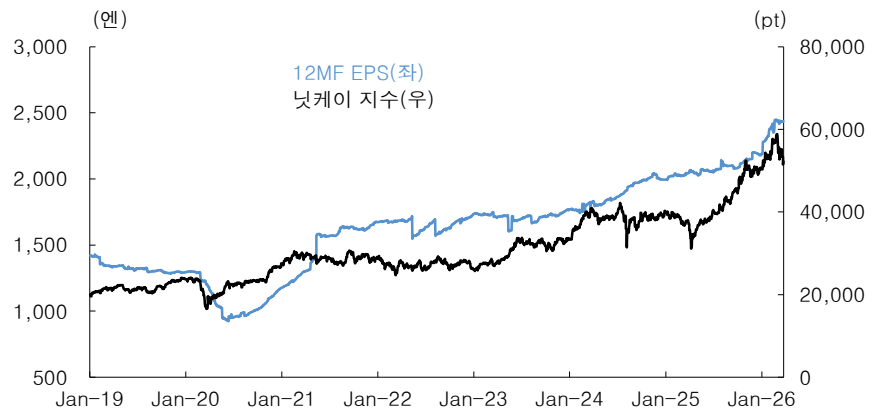
11. 일본 기업 펀더멘털 및 밸류에이션 점검

[그림 50] 글로벌 주요 지수 이익 전망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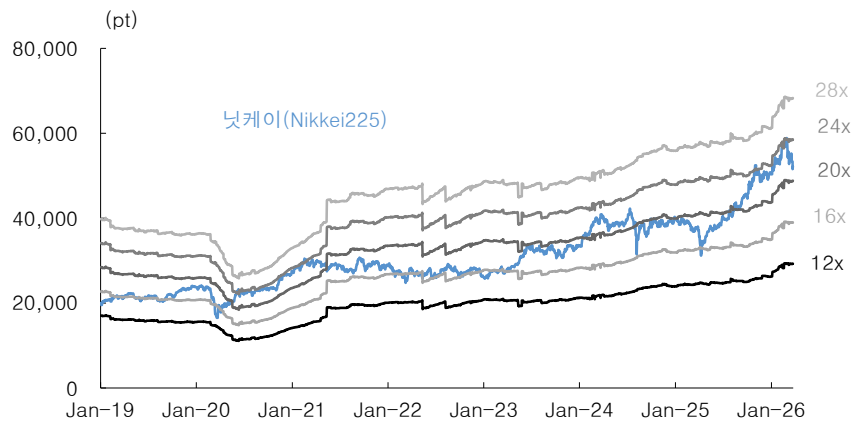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51] 일본 닛케이 기업 12MF EPS 및 지수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52] 일본 닛케이 지수 PER 밴드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ppendix. 2026년 일본 투자 아이디어 요약 (기업, ETF)

<표 7> 일본 내각/중앙은행 정책 수혜주

(단위: 십억엔, %, 배)

구분	티커	기업명	업종	시가총액	수익률		Earnings revisions		12MF PER
					1M	YTD	1M	3M	
AI/로봇/인프라	6501	히타치	산업재	22,037.3	(0.1)	(1.9)	1.6	3.1	23.3
	6702	후지쓰	IT	6,923.7	0.9	(22.8)	(2.0)	(6.6)	18.9
	6701	NEC	IT	5,523.8	10.2	(23.7)	1.8	4.9	18.3
	6954	화낙	산업재	5,687.0	(11.5)	(4.8)	1.2	6.9	29.1
	7012	가와사키중공업	산업재	2,539.0	(12.1)	45.7	2.2	4.8	24.8
	6383	다이후쿠	산업재	2,143.0	(9.8)	14.5	1.9	9.1	24.2
	6506	야스카와 전기	산업재	1,170.0	(13.9)	(7.8)	1.1	6.4	24.8
	6674	GS 유아사	경기소비재	503.7	(7.2)	33.7	0.4	1.4	13.6
대형은행	8306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	금융	31,318.9	(8.6)	5.9	1.7	6.4	12.2
	8316	스미토모 미쓰이 파이낸셜그룹	금융	19,704.0	(11.4)	2.1	0.9	7.4	11.4
	8411	미즈호 파이낸셜그룹	금융	15,335.0	(11.1)	8.1	(0.1)	9.1	11.5
증권	8604	노무라 홀딩스	금융	3,820.6	(10.6)	(4.9)	1.9	5.6	9.8
	8601	다이와증권그룹	금융	2,354.1	(5.6)	9.4	1.1	3.9	12.7
지방은행	7186	콩코디아 파이낸셜 그룹	금융	1,596.7	(16.2)	7.8	0.6	7.2	12.9
	5831	시즈오카 금융 그룹	금융	1,506.9	(15.6)	6.8	0.7	8.4	13.8
	8331	지바은행	금융	1,569.7	(11.1)	15.8	2.0	8.7	13.6
	8354	후쿠오카 파이낸셜 그룹	금융	1,154.7	(9.5)	19.2	2.4	8.0	11.9
식품/음료	2269	메이지 홀딩스	필수소비재	1,109.6	0.7	12.8	4.0	7.2	17.1
	2501	삿포로 홀딩스	필수소비재	638.2	(6.5)	(3.9)	(12.5)	476.4	3.9
대표 배당	2914	재팬토바코	필수소비재	11,640.0	(2.7)	3.2	(1.9)	2.2	16.6
	8001	이토추 상사	산업재	16,082.7	(7.4)	2.8	1.2	1.7	15.0

주: 3월 24일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표 8> 일본 대표 ETF(미국, 한국 상장)

(단위: 백만달러, 백만원, %)

구분	티커	ETF 명	AUM	일평균 거래대금	총 보수율	분배금 수익률	분배금 지급주기	10개기업 비중
미국 상장	EWJ	아이셰어즈 MSCI 재팬 ETF	18,904.9	612.2	0.5	4.2	반기	27.8
	BBJP	JPMorgan BetaBuilders Japan	15,006.8	104.3	0.2	5.0	연간	27.8
	DXJ	위즈덤트리재팬헤지드에퀴티펀드	5,766.6	82.1	0.5	1.2	분기	119.8
한국상장	241180	미래에셋 TIGER 일본니케이 225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	407,869.0	2,664.7	0.4	1.2	연간	45.1
	292560	미래에셋 TIGER 일본엔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	48,418.0	1,337.6	0.3	2.0	수시	100.0
	238720	ACE 일본 Nikkei225(H)	34,437.0	483.9	0.5	0.8	수시	58.0

주: 3월 24일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표 9> 일본 대표, 테마, 업종별 주요 ETF(일본 상장)

(단위: 백만엔, %)

구분	티커	ETF 명	AUM	일평균 거래대금	총 보수율	분배금 수익률	분배금 지급주기	10개기업 비중
토픽스	1306	넥스트 펀즈 토픽스 상장지수펀드	29,950,685.0	7,464.2	0.1	1.8	연간	22.0
일본대형주	2641	글로벌 X 일본 글로벌 리더스 ETF	145,545.0	177.3	0.3	1.8	반기	73.6
배당	1489	넥스트 펀즈 Nikkei 225 고배당주 50 지수 ETF	528,986.2	1,742.6	0.4	3.0	분기	36.9
Top20 IT	2854	글로벌 X 일본 테크 Top 20 ETF	8,395.0	30.0	0.3	0.8	반기	75.9
금융	1615	넥스트 펀즈 토픽스 은행 ETF	286,912.6	1,947.4	0.2	3.5	연간	85.0
상사	1629	넥스트 펀즈 토픽스 Commercial & Wholesale Trade ETF	27,914.5	179.1	0.4	2.1	연간	87.8
전자/정밀	1625	넥스트 펀즈 토픽스 Electric & Precision Instruments ETF	8,647.1	26.7	0.4	0.8	연간	65.3
IT 서비스	1626	넥스트 펀즈 토픽스 IT & Services Others ETF	5,100.9	12.5	0.4	1.4	연간	61.5
로봇/AI	2638	글로벌 X 일본 Robotics & AI ETF	7,910.0	70.9	0.6	0.3	반기	75.9
전력/가스	1627	넥스트 펀즈 토픽스 Electric Power & Gas ETF	3,308.0	47.1	0.4	1.1	연간	91.7
기계	1624	넥스트 펀즈 토픽스 Machinery ETF	3,102.7	25.6	0.4	3.2	연간	75.8

주: 3월 24일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공표일 현재 상기 종목의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리포트의 내용 일부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리포트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상기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리포트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리포트는 당사 리서치본부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리포트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리포트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리포트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본부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